한번 들으면 다 압니까? 듣고 또 들으세요

파계사 성전암 일오 스님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1일~9월 25일 매주 일요일 선지식 초청 법회를 진행 중이다. 파계사 성전암 현응선원 선덕 일오 스님이 두 번째 초청 법사로 법석을 열었다. 일오 스님은 가장 쉬운 말로 부처님 말을 전하고자 한다며 무아와 연기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 천진영 기자

한글로 풀어본 삼귀의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 하세요.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할 분. 스스로 완전하게 이루신 분.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승가에 귀의 합니다. 저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부처님만 오직 저의 의지처 입니다. 승가가 오직 저의 의지처 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지혜와 덕을 고루 갖추신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으뜸으로 인도 하시는 분. 최상의 진리를 표하시는 분. 열반에 잘 도달 하신 분. 부처님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보배. 세상에는 많고 많은 보배가 있지만 부처님에 견줄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승가에 견줄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된 말을 함으로 부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행사에 앞서 삼귀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글로 더 쉽게 풀어서 무슨 뜻인지를 알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기도합니다. 부처님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불자님들은 전국에 계시는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기도 하셨을 테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듣고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공부합시다

과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쉬운 말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그 쉽고 명확한 말씀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한 토막 거품이요, 느낌은 바다의 물방울과 같다. 마음의 구성은 화초와 같고, 알음알이는 환상과 같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오온개공(五蘊皆空)을 쉽게 풀어 본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번역을 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물질은 무상(無相)한 것이고 비물질도 무상한 것이고 인식도 무상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도 무상한 것이다. 알음알이도 무상한 것이다.'

자꾸자꾸 변해 없어져서 실체가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문으로 되어있는 내용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어색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경전도 함께 공부해야
부처님 말씀 쉽게 이해돼
핵심은 결국 무아와 연기뿐
법문 비슷해도 자꾸 들어야
행동으로 실천할 힘 생겨

한번 들어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하신 말씀 또 하고 오늘 하신 말 내일 또 하십니다. 가르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왜냐면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니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도반 스님께 하소연 했습니다. 그러니깐 도반 스님께서 "너는 한번 듣고 다 알았느냐!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열 번, 백 번 되풀이해 말씀하시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한번만 말하고 듣는 이가 다 이해하기를 바라느냐!"며 되레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선지식 초청 강의를 하고 있지만 스님들 법문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듣고 읽어봤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쉬운 말로 이해를 시키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자각할 수 있게 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사 스님 법문을 들으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처님 초기경전을 공부해보니 부처님께서는 정말 쉬운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법회 때 꼭 초기경전 이야기를 많이 들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도 아닌데 굳이 어려운 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움직임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아와 연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나'라는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집착하다보니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無我)요, 무아이기 때문에 연기(緣起)입니다.

하나 확실히 알아 둘 것은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씀하신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포함은 되지만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이것을 동일시해서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오온(五蘊)도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해체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쉽고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와 연기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허무를 느낍니다. 부처님 말씀은 나는 나이돼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기에 의한 '나'라는 것입니다.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체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이것이 제법(諸法)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제 마음과 다르지 않고 오늘 마음이 내일도 똑같습니까?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두고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해가 잘 되죠?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속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이 빠른 찰나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광속이라고 하죠? 마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순간이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난 순간이 사라지고 다음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지만 또 전혀 다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기불교 공부도 함께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화엄경〉을 보라고 권합니다. 참선을 중요시 여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한다면 온전한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신 무아와 연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업(業)을 소멸시킨다고 해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데 업을 소멸시키려고 하면 무아와 연기를 바로 알아야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가 없는데 탐욕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즉시(現今卽時), 곧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아와 연기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어떤 유혹과 욕망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신심을 비롯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면 옳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누군가가 내게 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연기에 의해,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 뿐입니다. 우리는 허공처럼 빈 상태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나 먼지가 일거나 말거나 허공은 허공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채워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허공이라고 생각하고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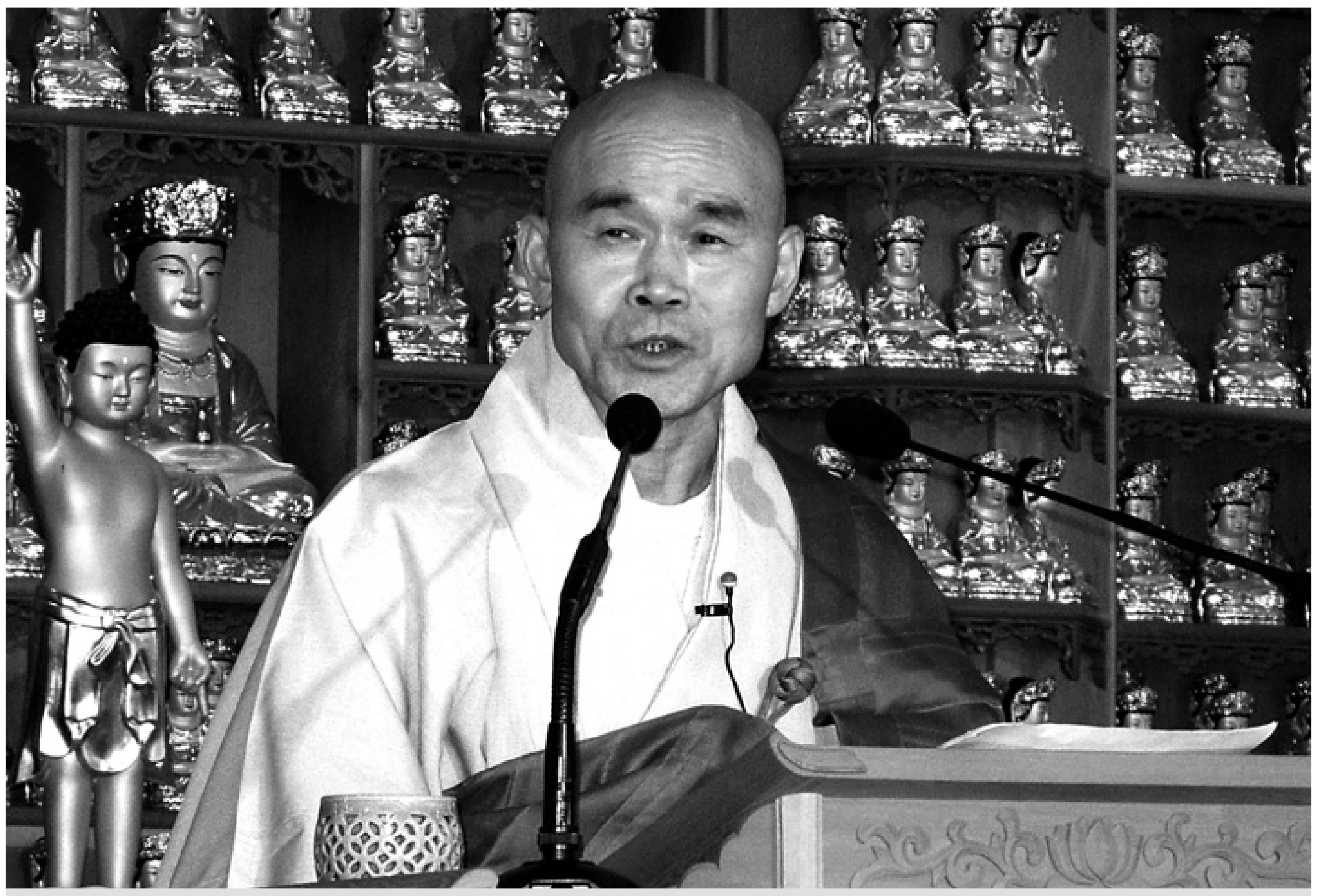
대승불교만이 최고이고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기경전을 보고 나니 비로소 조사스님들의 말씀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옳고 최고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라면 모두 두루두루 공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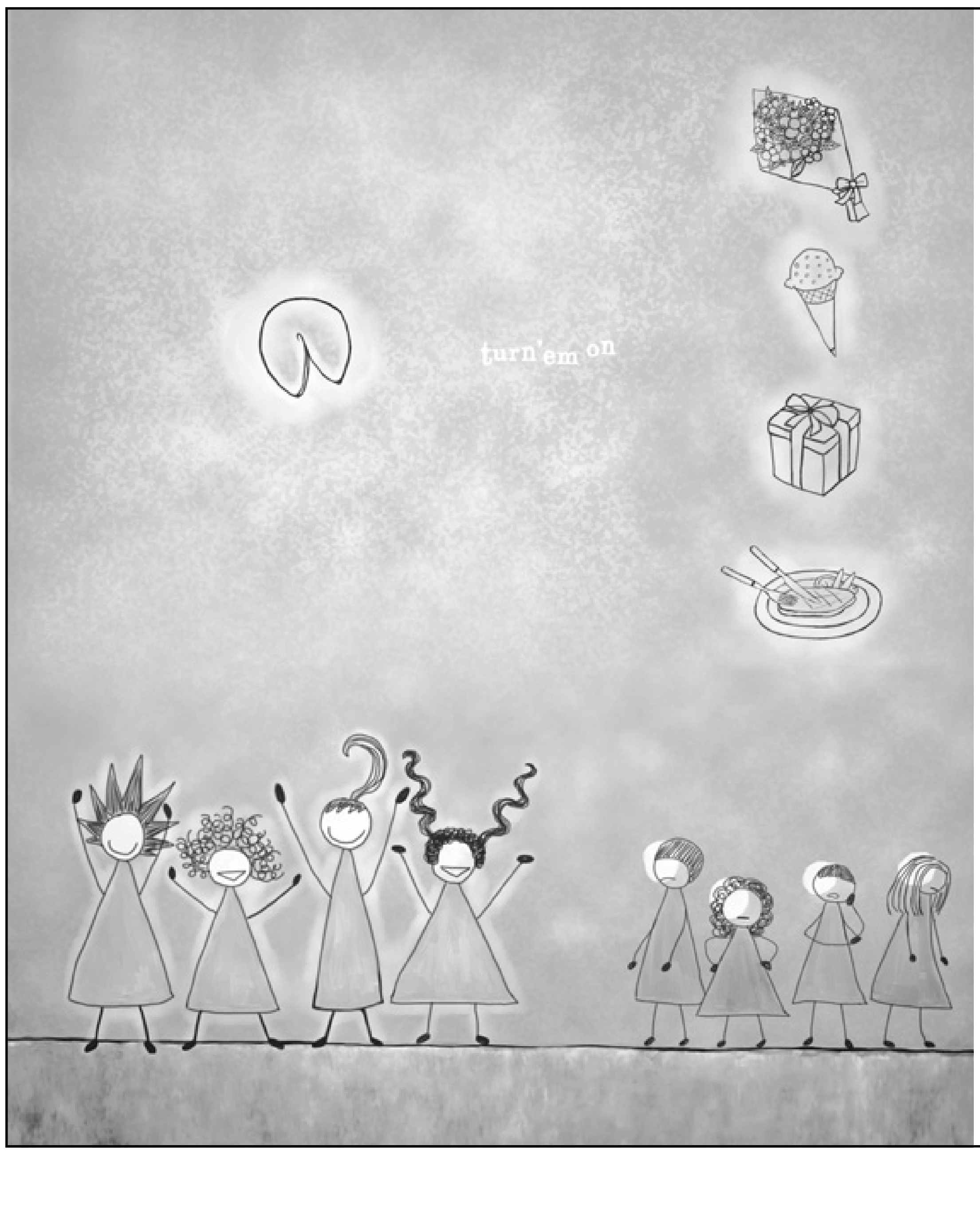
"편안한 행복을 느끼기에 깨달음을 성취할 때 까지 절대로 삿되고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걷겠으며 모든 나쁜 것들을 만나지 말고 행복을 얻겠습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니 제가 해탈을 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더 많은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질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마음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렴한 노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의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한 힘으로 어떠한 마장(魔障)도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



일오(一悟) 스님은… 194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5년 월인 스님을 은사로 함양 상연대에서 출가했다. 1971년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73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강진 만덕사, 1992년 사천 구룡사에서 잠시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행자시절부터 줄곧 전국의 선방에서 안거에만 매진해 왔다. 부안 월명암 사성선원장을 맡은 후 부터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장을 맡아 선풍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法 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